

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변동 가능성을 이미 안내하였으며,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8.23) >

◆ 슬그머니 올린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에 입주예정자들 뿔났다

○ 정권바뀌니 전 정부 공공주택 차별 불만도

□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 조정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,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.(8.18일 조간)

○ 이에 따라,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도 디딤돌 등 다른 대출상품과 마찬가지로 0.3%p 조정 예정입니다.

○ 다만, 이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

* (대출금리, %) 디딤돌^{일반} 2.45~3.3, 디딤돌^{신혼부부} 2.15~3.0, **신혼희망타운 1.6**

□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가능성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 시 이미 안내하였습니다.

《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안내 중 관련 사항》

※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뉴: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,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성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.

* 지원 대상, 금리 등은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

○ 따라서,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배기훈 (044-201-3340)

